

한국마케팅학회

마케팅학연구 제2집(1998)

동서 농산물 협력체제 구축 방안

이 상 학*

〈요약〉

경남 및 전남지방은 산업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두 지방의 농업의 특성은 큰 차이는 없으나, 전남 지역이 농가인구, 호당 경지면적이 넓다. 영농 형태별로는 전남 지역이 수도, 전작의 비중이 크며, 경남지역은 과수, 채소, 화훼, 축산 등 소득작목의 비중이 높다. 농업기반에 대하여 보면, 농업진흥지역비율은 경남 53.7%, 전남 64.8%이며 수리답율은 81.9% 76.1%, 경지정리율은 76.1%, 68.4%로 경남지역이 유리한 기반을 갖고 있다. 작목별 특화도를 보면 경남 지역은 맥류, 서류, 양파, 마늘, 감, 화훼류 등이 높으며, 전남 지역은 맥류, 두류, 마늘, 양파, 감, 참깨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 수급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은 미곡, 두류, 무, 배추, 고추,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이 부족하며, 서류, 마늘, 양파, 배 등이 과잉이고, 전남지역은 대부분이 과잉이며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이 부족하다.

지역간 농업협력은 상호 과부족인 농산물의 교역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작목에 특화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누리는 방안과 타 지역이나 해외 진출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서서는 무엇보다 양 지역농업 및 농민에 대한 상호 이해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지역별 비교우위가 분명한 품목에 대하여 상호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교역을 지원하며,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파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생산, 계획 유통이 불가피한 만큼 농협, 농민단체, 지방정부간의 농업정보의 공유와 조정 채널을 구축하고, 지역간 직거래 활성화하고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농산물 장터 등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노력, 농업기술의 상호 교류 등이 필요하다.

I. 서론

지역경제체제는 국가경제체제와는 달리 개방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가경제에 있어서 타 국가와의 교역은 관세와 같은 교역장벽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 간의 교역은 이와 같은 장벽이 거의 없이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에 판매되며 필요한 것은 다른지역으로부터 구매한다. 이러한 지역 간의 교역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비교우위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지역생산의 비교우위성은 지역간 생산요소의 부존량과 생산기술 등 여러 가지 지역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경제가 지니고 있는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각 지역간 교역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지역간 교역은 매우 미미하여 이에 대한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통계자료도 거의 찾아 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가 그

* 밀양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부교수

다지 넓지 못하고 농업생산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날 정도로 지역간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도 기인하지만 국가 내의 모든 활동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하여 비대해진 수도권은 우리에게 이미 낯익은 모습이다. 교역의 흐름도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화된 틀 속에서 구축되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끼리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적인 체계는 지역간의 교역에 커다란 장벽으로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농산물의 경우 각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일단 수도권으로 반입되어 다시 각 지방으로 분배되는 유통 경로를 형성하고 있어 물류의 흐름 상 커다란 비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지자체의 단체장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부여되었고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은 교역에 있어서도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따라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교역 흐름은 그 강도가 점차 약해질 것이고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간의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될 수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간에는 거리상으로는 서로 인접하고 있지만 지형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문화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에 따라 그 동안 물적 교역을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서로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양 지역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지역이나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양 지역간의 건전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의 제시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농업 부문에 초점을 두어 양 지역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동서간 농업의 현황 비교

1. 농가인구

전남 및 경남의 농가 인구수는 각각 670천명, 515천명이고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은 각각 30.9%, 16.8%으로 전남지역이 경남지역보다 농가인구 비율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농가인구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연령 계층은 두 지역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청장년층이라 할 수 있는 20-49세의 연령계층의 비율은 경남 지역이 다소 높고 50-59세 연령계층의 비율은 전남지역이 약간 높음으로써 전남지역의 농가인구가 노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 구조는 두 지역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1> 농가인구 및 농가구수 현황 (1997)

단위 : 천명, 천호, 명/ha

구 분	인 구 수			가 구 수			인구밀도
	총인구(A)	농가인구(B)	B/A	총가구(C)	농가구(D)	D/C	
전 남	2,166	670	30.9%	697	241	34.6%	1.81
경 남	3,058	515	16.8%	959	180	18.8%	2.92

<표 2> 성별·연령별 농가인구 현황 (1997)

단위 : 천명, %

구 분	총 농 가 인 구 수			14세이하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여					
전 남	670(100.0)	312(46.6)	358(53.4)	78(11.6)	58(8.7)	175(26.1)	135(20.1)	224(33.4)
경 남	515(100.0)	241(46.8)	274(53.2)	58(11.3)	42(8.2)	153(29.7)	92(17.8)	170(33.0)

전남지역의 농가수는 총 241천호인데 이 중 98.8%인 238천호가 경종농가이고 경남지역은 총 180천호의 농가 중 98.3%인 177천호가 경종농가이다. 농가의 호당경지면적은 전남이 1.38ha로 경남의 1.11ha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지규모별 농가호수를 보더라도 전남지역의 농가가 경남보다 경지규모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가호수를 영농형태별로 살펴보면 벼농사와 전작 농가의 비율이 전남의 경우 각각 67.6%와 6.9%로 경남의 57.2%와 3.6%보다 높은 반면 과수, 채소, 화훼 축산 농가에 있어서는 경남이 전남보다 그 구성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전 겸업별 농가의 구성비를 보면 두 지역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농업인후계자 등의 농업관련 인력 및 조직의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3>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현황 (1997)

단위 : 천호, %, ha

구 분	총농가	경종외 농가	경 종 농 가								호당경지면적
			소계	0.1ha 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 이상	
전 남	241 (100.0)	3 (1.2)	238 (98.8)	1 (0.4)	73 (30.3)	73 (30.3)	39 (16.2)	23 (9.5)	18 (7.5)	11 (4.6)	1.38
경 남	180 (100.0)	3 (1.7)	177 (98.3)	2 (1.1)	72 (40.0)	58 (32.2)	24 (13.3)	11 (6.1)	7 (3.9)	3 (1.7)	1.11

4 마케팅과학연구 제2집(1998)

<표 4> 영농형태별 농가호수 현황 (1997)

단위 : 천호, %

구 분	총농가수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전 남	240.7 (100.0)	162.6 (67.6)	9.4 (3.9)	41.5 (17.2)	1.3 (0.5)	0.3 (0.1)	16.6 (6.9)	8.2 (3.4)	0.8 (0.3)
경 남	179.9 (100.0)	103.4 (57.2)	18.0 (10.0)	38.2 (21.2)	0.8 (0.4)	1.5 (0.8)	6.5 (3.6)	11.2 (6.2)	0.3 (0.2)

<표 5> 전겸업별 농가호수 현황 (1997)

단위 : 천호, %

구 분	총농가수	전업농가수	겸업농가수		
			소 계	1종겸업	2종겸업
전 남	240.7 (100.0)	150.5 (62.5)	90.2 (37.5)	31.5 (13.1)	58.6 (24.3)
경 남	179.9 (100.0)	113.5 (63.1)	66.4 (36.9)	18.4 (10.2)	48.0 (26.7)

- 1) 1종겸업 : 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이상인 겸업농가
 2) 2종겸업 : 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미만인 겸업농가

<표 6> 농업인력 및 조직 현황 (1997)

단위 : 명, 호, 개소

구 분	농업인후계자		전업농가		4-H회	영농조합	농업회사
	인원수	총농가인구 대비	가구수	총농가 대비			
전 남	16,428	2.45%	13,240	5.49%	490	1,050	189
경 남	13,490	2.62%	7,415	4.12%	645	465	235

2. 농촌경제

농가소득은 1997년 현재 전남지역이 호당 연 21,034천원으로 경남의 23,507천원보다 약 2,473천원이 낮고 농외소득 비율에 있어서도 전남(31.9%)이 경남(44.7%)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이전소득의 비율이 2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농가소득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도 상대적 저위를 보이고 있다.

<표 7> 농가소득 현황 (1997)

단위 : 천원, %

구 분	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전 남	21,034 (100.0)	8,965 (42.6)	6,703 (31.9)	5,366 (25.5)
경 남	23,507 (100.0)	8,784 (37.4)	10,501 (44.7)	4,222 (18.0)
전 국	23,488 (100.0)	10,603 (45.1)	8,278 (35.2)	4,607 (19.6)

농가부채는 전남지역이 호당 10,860천원으로 경남지역의 11,781천원보다 낮았는데 부채의 구성을 보면 전남지역의 경우 경남지역이나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부채보다는 가계성부채의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농촌의 소득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촌특산단지나 농촌휴양단지의 분포는 <표 9>와 같다.

<표 8> 농가부채 현황 (1997)

단위 : 천원, %

구 분	총부채액	생산성부채	가계성부채	차입금상환용
전 남	10,860 (100.0)	7,939 (73.1)	1,929 (17.8)	992 (9.1)
경 남	11,781 (100.0)	9,296 (78.9)	1,271 (10.8)	1,214 (10.3)
전 국	13,012 (100.0)	9,781 (75.2)	1,775 (13.6)	1,456 (11.2)

<표 9> 형태별 농촌소득원 현황 (1997)

단위 : 개소

구 분	농촌특산단지 ¹⁾	농촌휴양단지 ²⁾	농공단지입주업체	농산물가공업체 ³⁾
전 남	143	111	601	147
경 남	94	87	568	147

- 1) 민속공예품, 일반공산품, 농수산물, 섬유직물, 석재 등의 업종임
- 2) 휴양단지, 관광농원, 민박마을 등임
- 3)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가공업체임

3. 농업생산기반

양 지역의 토지종별을 기준으로 한 농경지 현황을 보면 전남의 경우 농경지 비율이 27.8%이고 경남지역은 18.9%이다. 이 중 논이 차지하는 비율인 답률은 약 66%로 두 지역 거의 비슷하다. 전체 농경지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비율은 전남지역이 64.8%이고 경남지역은 53.7%이다.

<표 10>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1997)

단위 : 천ha, %

구 분	총면적	농 경 지			임 야	기 타
		소 계	논	밭		
전 남	1,196 (100.0)	333 (27.8)	219 (18.3)	114 (9.5)	700 (58.5)	163 (13.6)
경 남	1,051 (100.0)	199 (18.9)	132 (12.6)	67 (6.4)	712 (67.8)	140 (13.3)

<표 11>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1997)

단위 : ha

구 분	전체농지 (A)	지 정 면 적			B/A (%)
		계 (B)	진흥구역	보호구역	
전 남	332,679	215,410	173,346	42,064	64.8
경 남	183,660	98,593	85,232	13,361	53.7

농업 부문의 인프라 정도를 나타내는 수리답률과 경지정리율을 비교해 보면 모두 경남지역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리답률은 경남이 81.9%, 전남이 70.8%이며 경지정리율은 대상면적 기준으로 경남이 76.1%, 전남이 68.4%이다. 벼농사의 기계화 정도는 두 지역 건조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 있어서 90% 이상의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어 벼농사의 기계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2> 농업생산기반 현황 (1997)

단위 : %

구 분	수리답률	경지정리율*
전 남	70.8	68.4
경 남	81.9	76.1

* 대상면적 기준임

<표 13> 벼농사의 작업별 농기계화율 (1997)

단위 : %

구 분	경운·정지	이 앙	방 제	수 확	건 조
전 남	97	92	96	97	17
경 남	99	94	99	95	7

4. 작물 생산

<표 14>에서 <표 18>까지는 두 지역의 작물재배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작목별 재배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기초로 전국의 동일작물 재배면적에 대비한 두 지역의 작물별 특화계수를 산출한 것이 <표 19>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남지역은 맥류, 마늘, 양파 등의 작목이, 경남지역은 국화, 카네이션, 안개초 등의 화훼류와 감, 맥류 등이 특화 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4> 식량작물 재배면적 현황 (1997)

단위 : ha

구 분	계	미 곡	맥 류	두 류	서 류	잡 곡
전 남	291,097	202,375	41,232	36,454	7,886	3,150
경 남	145,605	113,734	12,438	11,189	6,213	2,031

<표 15> 채소류 재배면적 현황 (1997)

단위 : 천ha

구 분	계	배 추	무	고 추	마 늘	양 과	기 타	시설채소
전 남	75.1	8.5	4.5	11.9	17.2	6.2	17.4	9.4
경 남	41.6	2.7	2.1	3.6	5.4	2.3	7.5	18.0

<표 16> 과실류 재배면적 현황 (1997)

단위 : 천ha

구 분	계	사 과	배	포 도	복숭아	감	기 타
전 남	19.6	0.6	4.0	0.4	0.4	8.0	6.2
경 남	23.0	3.0	3.0	1.0	0.7	12.0	3.3

<표 17> 특용작물 재배면적 현황 (1997)

단위 : ha

구 분	계	참 개	들 개	땅 콩	버 섯
전 남	15,058	13,820	820	236	182
경 남	5,395	4,505	630	227	33

<표 18> 화훼류 재배면적 현황 (1997)

단위 : ha

구 분	계	국 화	카네이션	장 미	안개초	철 쪽	기 타
전 남	273	71	24	32	14	81	51
경 남	646	241	79	99	152	2	73

<표 19> 작물별 특화계수의 비교*

작목별	전 남	경 남	작목별	전 남	경 남
미 곡	0.92	0.96	포 도	0.07	0.32
맥 류	2.85	1.59	복숭아	0.17	0.57
두 류	1.43	0.81	감	1.32	3.69
서 류	0.93	1.36	참 깨	1.36	0.82
잡 곡	0.50	0.60	들 깨	0.31	0.45
배 추	1.07	0.63	땅 콩	0.20	0.36
무	0.72	0.62	버섯	0.76	0.25
고 추	0.73	0.41	국 화	0.46	2.92
마 늘	2.29	1.34	카네이션	0.67	4.07
양 파	2.29	1.58	장 미	0.23	1.30
사 과	0.07	0.67	안개초	0.25	4.98
배	0.87	1.21	칠 쪽	1.40	0.06

* 특화계수(LQ)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한다.

$LQ = \text{해당지역의 해당작목 재배면적 비율} / \text{전국의 해당작목 재배면적 비율}$

5.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소비지 유통시설로 광주, 부산, 울산, 창원 등에 공영도매시장이 1개소씩 있고 산지유통시설로는 청과물처리장, 포장센터,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표 20> 소비지 유통시설 현황 (1997)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 매 시 장			공 관 장
		소 계	공 영	법 정	
전 남	10	3	-	3	7
광 주	6	3	1	2	3
경 남	17	3	1	2	14
부 산	10	8	1	7	2
울 산	1	1	1	-	-

<표 21> 산지 유통시설 현황 (1997)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청과물처리장	포장센터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미곡종합처리장
전 남	824	1	12	436	323	52
광 주	59	-	-	8	48	3
경 남	784	1	10	320	433	20
부 산	21	-	-	13	8	-
울 산	99	-	-	9	88	2

6. 축산

양 지역의 가축사육 현황 및 축산물 유통시설 현황은 <표 22> 및 <표 23>과 같다.

<표 22> 가축사육 현황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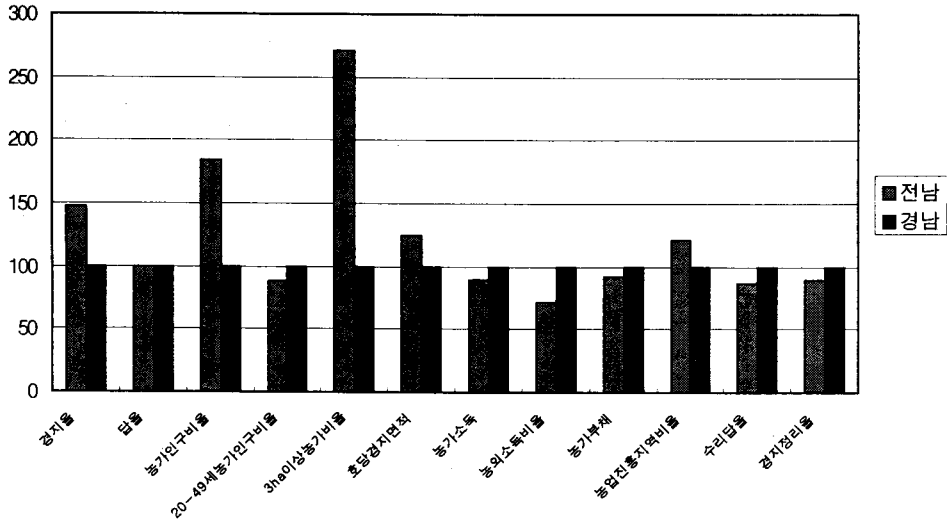
단위 : 천두, 천수, 천호

구 분	한 우		유 우		돼 지		닭	
	두 수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호 수
전 남	500	89	45	1.2	789	5.6	12,532	13
경 남	396	80	37	1.1	786	3.9	6,970	17

<표 23> 축산물 유통시설 현황 (1998년 3월 현재)

구 분	지정도매인	처 리 능 력 (두/목)	
		소	돼 지
전 남	축협나주공판장	100	700
광 주	삼 호 축 산	200	2,000
경 남	김 해 공 판 장	120	1,500
부 산	태 광 산 업	120	1,500
	동 원 산 업	300	1,500

<그림 1> 주요 관련 지표의 지역간 비교(경남=100)



Ⅲ. 동서지역의 농산물 수급 분석

1. 전남지역의 농산물 수급

광주를 포함한 전남권역의 총인구수와 우리나라 1인당 농산물소비량을 기초로 전남지역의 농산물 총수요량을 산출하여 이를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생산량과 비교해 보면 <표 24>와 같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지역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의 과실류만이 자체 생산만으로는 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남지역이 대부분의 농산물에 있어서 농산물 잉여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전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농업의 기반산업 역할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특히, 마늘, 양파와 같은 채소류는 각각 연간(1997년 기준) 183, 306천 M/T의 잉여생산량을 나타내고 있고 미곡, 서류, 배추, 배 등의 품목도 매우 높은 잉여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표 24> 전남지역의 농산물 수급 현황(1997)

품목별	역내생산량 (천M/T)	수요			과부족 (천M/T)	역내자급률 (%)
		역내인구수* (천명)	1인당소비량 (kg)	총수요량 (천M/T)		
미곡	1,088	3,474	102.4	356	732	305.6
두류	55	3,474	9.3	32	23	171.9
서류	44	3,474	3.6	13	31	338.5
무	216	3,474	21.6	75	141	288.0
배추	528	3,474	38.2	133	395	397.0
마늘	206	3,474	6.6	23	183	895.7
양파	349	3,474	12.4	43	306	811.6
고추	32	3,474	2.4	8	24	400.0
사과	6	3,474	14.1	49	△43	12.2
배	71	3,474	5.6	19	52	373.7
포도	5	3,474	8.7	30	△25	16.7
복숭아	5	3,474	3.2	11	△6	45.5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1998), 농림부

* : 역내인구수는 1995년12월말 현재(주민등록인구) 전남, 광주의 인구를 합한 숫자임

2. 경남지역의 농산물 수급

전남지역이 많은 품목에 있어서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남지역은 대도시인 부산, 울산, 창원 등을 포함한 권역내 총수요량을 지역 내에서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다. 쌀의 경우만 하더라도 역내 자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여 총 253천M/T의 양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 밖에도 두류, 무, 배추, 고추, 사과, 포도 등의 주요 농산물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족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러한 품목들의 부족분은 타 지역이나 해외로부터 수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류, 마늘, 양파, 배와 같은 품목들은 약간의 잉여 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25> 경남지역의 농산물 수급 현황(1997)

품목별	역내생산량 (천M/T)	수 요			과 부 족 (천M/T)	역내자급률 (%)
		역내인구수* (천명)	1인당소비량 (kg)	총수요량 (천M/T)		
미 곡	551	7,852	102.4	804	△253	68.5
두 류	15	7,852	9.3	73	△58	20.5
서 류	31	7,852	3.6	28	3	110.7
무	94	7,852	21.6	170	△76	55.3
배 추	235	7,852	38.2	300	△65	78.3
마 늘	64	7,852	6.6	52	12	123.1
양 과	139	7,852	12.4	97	42	143.3
고 추	8	7,852	2.4	19	△11	42.1
사 과	36	7,852	14.1	111	△75	32.4
배	47	7,852	5.6	44	3	106.8
포 도	15	7,852	8.7	68	△53	22.1
복숭아	12	7,852	3.2	25	△13	48.0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1998), 농림부

* : 역내인구수는 1995년12월말현재 (주민등록인구) 경남(울산 포함), 부산의 인구를 합한 숫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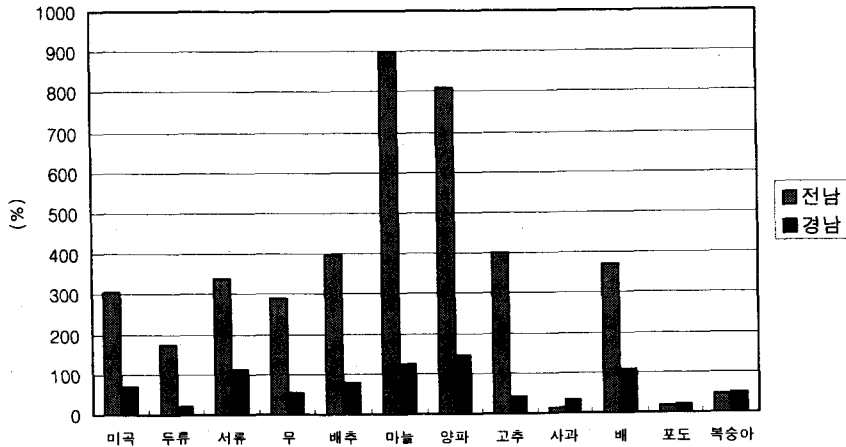
IV. 동서 농업 협력체계의 구축 전략

1. 동서 농업 협력체계의 기본 구상

지역 간의 경제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구도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경제협력은 주로 교역에 의존한다. 국가간의 교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간의 교역도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를 교환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지역간의 교역은 교역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역으로 인한 지역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국가간의 교역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동서 간의 교역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원리를 가장 존중하되 양 지역간의 교역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며 자연스러운 교역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동서 농업 협력체계의 구축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두 지역 간의 농산물이나 농산물 생산요소의 교역을 활성화시켜 상호 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지역 간의 교역이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남과 경남지역 간의 농산물 협력체계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여건, 자원부존량, 기후적 조건, 기술 조건 등의 제반 조건

<그림 2> 주요 품목별 역내자급률의 비교



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지역의 작물별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양 지역 중 공급이 모자라는 작물이 있을 경우 잉여 지역으로부터 부족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럴 경우 양 지역 간의 직거래 교역을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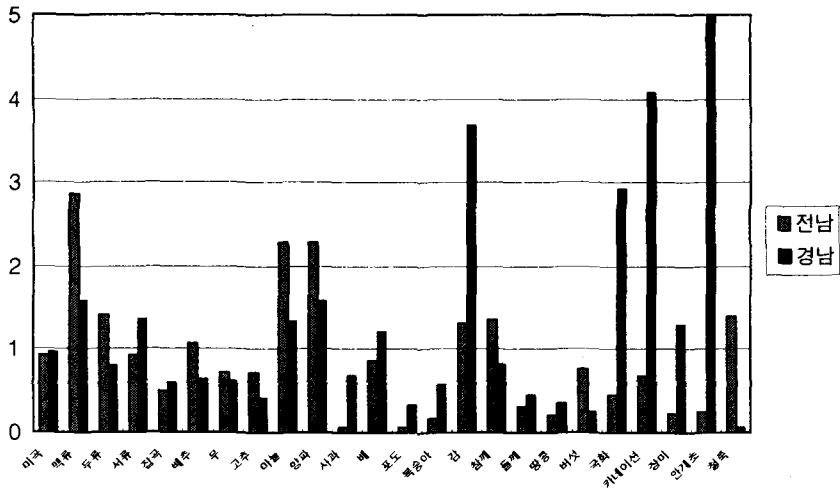
다른 하나는 두 지역이 타 지역이나 해외와의 교역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행동함으로써 일종의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및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ope)를 추구하는 것이다. 두 지역이 타 지역이나 해외와의 교역에 있어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시장 개척, 가격 정보, 홍보 활동, 생산요소 조달, 생산품 공급 등에 있어서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와 교역을 할 때 수출주문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시장정보의 획득, 홍보활동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통한 실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구상 하에서 동서 간의 농업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 지역농업의 특화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에서도 전문화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간다. 지리적 여건, 자원부존량, 기후적 조건, 생산기술 등 지역의 주어진 특성을 이용하여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작목을 특화시킨다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것이며 이는 다시 전문화를 통하여 생산기술이 더욱더 진보되는 선순환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동서 양지역은 각 지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작목을 핵심 및 주산작목으로 선정하여 이들 작목의 특화를 유도한다. 비교우위 작목의 특화 및 전문화는 동서간 농업협력체계의 구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 지역간 농산물 교역을 통해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품목별 특화계수의 비교(1997)



3. 농업 정보의 공유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양질의 지역정보의 존재 여부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는 해당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정보는 농업경영자의 소득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정부와 농협에서 농수산물 생산, 유통, 경영, 농업경제, 농업기술 등 부문별 정보시스템과 농업관측 시스템, 통합농업정보시스템 등 농업관련 정보 하부구조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이해와 활용이 요구된다. 농업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이야말로 지역간 생산계획 수립과 조정부터 출하조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간 협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4. 농산물유통 협력체계의 구축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는 품목별로 각기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품목의 특성, 생산여건, 유통관련 사회간접자본의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곡의 경우는 민간유통과

정부관리유통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민간유통은 농협유통과 민간상인유통으로 나눌 수 있다. 청과물의 유통경로는 대체로 5-7단계이며 주된 유통경로는 생산자→산지수집·반출상→도매시장(중도매인, 위탁상)→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경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에서는 산지집출하 조직을 통한 공동출하가 활성화되지 않아 산지수집상과 산지시장의 기능이 크고 도매단계에서는 도매시장의 비중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소비지 유통업체와 산지 출하자 간의 직거래(Direct Marketing), 계약생산, 수직적통합 등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통체계는 근본적으로 생산규모의 영세성과 지역적 분산성, 소비지 유통업체의 영세성, 등급화, 표준화의 미비, 유통정보의 부족 등 제반 경제여건 및 유통환경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유통체계는 결국 생산자의 수취가격과 소비자의 지불가격 간에 커다란 괴리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김장배추의 경우에는 농가수취율이 11.0%에 지나지 않는다(김동환 외, 1995). 심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의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된 후 다시 지방의 소비지로 반출되는 비효율적인 유통경로를 보이기도 한다.

동서 간의 농산물 협력체계는 이러한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동서 지역 간에 직접적인 유통경로를 구축하여 유통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동서 간의 유통경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도모하여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줄임으로써 양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간 직접적인 유통경로 구축을 위해서는 양 지역의 농협이 서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수집, 출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를 위해서는 아파트 정기직판 행사, 도시지역 직거래장터, 지역기업체 수시 직판행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같은 유통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하여 대도시의 직판장 기능을 보강한다. 농산물유통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가 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유통체계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농산물을 인터넷 전자쇼핑몰에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촉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농산물 해외수출 협력체계의 구축

지금까지 우리농업은 국내공급에 주력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여건을 갖지 못하였다. 농산물 수출은 인접국가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품목에 국한하여 수동적으로 이루어졌고 적극적인 시장개척 등의 노력이 결여되어 왔다. 하지만 1997년 농산물 수출실적은 18억5천만불로서 1994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돼지고기, 인삼, 밤, 김치 등은 주요 수출품목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각 지역이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애로사항은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영세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고 수출교섭력도 불리하며 수출과 관련된 가격동향, 수출가능량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판로개척이 힘들다는 것이다. 전남과 경남지역에서는 도에서 각각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지역산품을 해외 수출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도의 통상지원과 및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수산물 수출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시장 개척, 수출상담 및 업체 지도를 맡고 있는 등 농산물 수출에 힘쓰고 있다.

양 지역은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양 지역의 무역회사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품목의 다양화 및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기하고 수출정보를 수집하여 서로 공유함으로써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6> 양 지역의 역점수출품목

구분	역점수출품목
전남	오이, 토마토, 딸기, 멜론, 단호박, 양파, 김치, 배, 참다래, 국화, 백합, 돼지고기, 닭고기, 밥,
경남	멜론, 오이, 방울토마토, 가지, 피망, 파리고추, 밤호박, 우엉, 딸기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증대방안, 1997.

6. 농업기술의 교류

농업기술의 개발은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농업은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속도가 느린 편이고 기술의 전파 및 이전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재원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민간 농가에서 경험적으로 개발된 실질적인 기술도 농업생산기술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각 지역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는 양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성공적인 선진농업지역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견학을 하거나 혹은 일정 기간동안 체류하면서 서로의 농업기술을 체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지역의 농촌진흥원은 서로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경상남도(1997), 농업경영변동분석
2. 경상남도(1996), 지역경제백서
3. 농림부(1998), 농림업주요통계
4. 농산물유통공사(1997),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증대방안
5. 전남대학교농어촌개발연구소(1990), 서남해안시대의 전남농업종합개발계획(안)
6. 전라남도(1998), 전남농업통계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8), 1998년 농업전망과 정책과제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5), 농산물유통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0), 경남지역농업사례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0), 전남지역농업사례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5),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농축산물의 입지배치에 관한 연구